

서울 주보

제2484호
2024년 1월 7일(나해)

주님 공현 대축일

왕들의 경배

카를로 돌치
(Carlo Dolci, 1616-1686),
1649, 캔버스에 유채, 117x92cm,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
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
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꽂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

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
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
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L.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
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 (마태 2,12)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흘러가는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해를 다시 맞이하여 ‘시간은 공간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위로와 희망을 지니게 됩니다.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처지가 아무리 암울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뜻하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와 가능성으로 주어지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이기에 무한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늘 우리에게 가슴 설레는 인생의 환희와 신비를 안겨줍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神性)을 지니신 외아드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人性)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의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가 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분신(分身)이자 자기 자신인 외아드님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극진한 사랑(요한 3,16–17)을 우리에게 계시해줍니다. 하느님의 외아들께서 육신을 취하신 강생의 신비로 우리 인간은 물론 온 세상 우주

만유일체가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상징하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느님의 신비의 계획을 알아보았고 거기에 응답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나선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라는 질문에서 잘 보여지듯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우주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배드림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장 합당한 예배(로마 12,1–2 참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처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마태 2,12)

동방박사의 위대함은 인간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신비, 곧 인간의 본성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 말씀의 씨앗인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과 갈망을 계속 키우고 성장시키고 완성하심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오늘 복음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여 주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체된 종교인의 삶에서 환골탈태(convertio)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에 탄생하여 함께 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경배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 왕들의 경배

어둡고 낡은 오두막에 별이 밝게 빛을 내고 예수님을 훤히 비추며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바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자, 하느님의 대사제이시며 인간을 위한 수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카를로 돌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과 함께 신심 깊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의 신앙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성화를 바라보며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간절한 기도의 힘



차승원 요한 | 배우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어느 날, 꼭 잡은 할머니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날 눈이 내렸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추위를 녹인 그 온기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허리에 달을 락 말락 한 키의 아이 눈에 비친 동네 성당은 무척이나 크고 높았습니다. 무언가 강렬한 기운에 압도된 소년은 별생각 없이 어머니를 따라 눈을 감은 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만났고, 주일마다 가는 성당은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스트리밍 된 영화 공개를 앞두고서도 성당을 찾아 하느님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그곳에서 자주 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삶이 팍팍했던 과거의 어느 때, 밤샘 촬영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위로와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목적 없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찾아가도 하느님은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감히 신앙과 믿음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현재 제 삶을 차지하는 것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차승원으로서도 말입니다. 물론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를 원하지 않는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또는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도 기도와 믿음 자체의 힘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기도는 용기와 희망, 자기 긍정이라는 특별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당연하고, 특별히 멋있지도 않은 이 한 문장은 신앙인 차승원이 예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담고 있

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나 스스로를 믿는 것. 여기에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받은 결과물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시쳇말로 말하는 인기와 흥행, 성공이라는 열매만이 제가 얻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길 잃은 양에게 언제나 답을 해주십니다. 처음 성당을 찾은 소년은 어느새 키가 훌쩍 큰 중년이 되었으나, 세월만큼 그 믿음과 신앙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한 기도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을 때, 또 생각했습니다.

“아, 하느님은 존재만으로 내게 힘이 되는구나. 선한 영향을 주시는구나!”

하느님은 제가 더 옳은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며, 행동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를 건네고, 또 살아 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당을 찾습니다. 그곳은 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성스럽고 포근한 장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1월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예법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합시다.

하얀 도화지 위에 꿈을 그릴 수 있게! 발달 장애인이 미술작가로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하얀 도화지 위에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표현하는 민우 씨 작품 세계에는 동심이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복지관에 일찍 와서 누가 왔는지 여기저기 살펴본 후 책상 위에 앉아 하얀 스케치북을 펴고 연필로 스케치합니다. 재미가 있는지 집중하느라 연필을 놓지도 않습니다. 미술 수업을 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민우 씨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발달 장애가 있어 자각이 갖고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는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안절부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드림블라썸아카데미 미술 작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부터 완전히 딴사람이 됐습니다. 지각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수업 전부터 교실에 들어와 그림 그릴 준비를 해놓는 열의까지 생겼습니다.

“요즘 민우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특하면 집에 와서 울곤 했는데 지난 5년간 민우의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하던 아이였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3시간 작업은 거뜬히 해내요. 지금은 미술 작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강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 많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는 복지관에서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미술 교실이 문 닫으면 큰일이네요….”(드림블라썸아카데미 정민우 발달 장애인 작가 어머니)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발달 장애인을 발굴하여 미술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블라썸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들이 예술적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술 도구를 지원받고 전문 강사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크릴 물감 하나의 가격만 해도 1만 원이 넘어, 발달장애인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꿈을 뒷받침하기에는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부족해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지만, 놀라운 상상력과 감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고 편견 없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미술 작가로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힘을 주세요.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1월 6일~2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을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가톨릭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신학(神學 Theologia)이란 하느님(Theos)에 대하여 이 야기(logos)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 말이 나 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즉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통해 4명의 젊은 신학자들이 ‘가톨릭 신학’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게 됩니다. 교의신학, 윤리신학, 성서신학을 전공한 신학교 교수 4명이 천주교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알았으면 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학’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미사 때 고백하는 ‘신경’(信經)은 ‘믿을 교리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경은 믿을 교리, 즉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성경과 초기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인데,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신경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성부)하시고, 인간을 구원(=성자)하시며, 성화(=성령)시키신다고 합니다. 특히 하느님 구원 계획 전체

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계시한장』 4항 참조) 따라서 가톨릭 신학과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이며 결론은 이 두 가지,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창세기 1,1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말씀이 창조 이전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결국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느님 말씀’이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삶에 대한 답입니다.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귀와 마음에 잘 새겨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과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가요?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하고, 하느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응답하라
가톨릭교리



새해의 처음을 여는 1월 1일은 전례력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유래

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이죠. 이 축일은 3세기 이전부터 형성된 대중 신심의 하나인 성모 공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주님의 탄생(성탄) 팔일 축제’가 생기면서 이 축일의 뜻이 흐려지고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성모 축일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 되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1969년 ‘하느님의 어머니’를 다시 강조하고 기념하게 되면서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작성 홍웅기 아오스팅 신부 |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이석채 빈천시오 |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은 아기 예수 탄생의 연장인 팔일 축제로서 성모의 역할을 칭송하는 성모 공경 취지를 담고 있는 것과 함께 새해에 대한 축복과 평화의 기원, 주님의 할례 등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내오던 축일 내용들을 그 이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 구원의 협력자

하느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해 마리아를 협력자로 부르셨다!

· 주님의 탄생(성탄) 팔일 축제

성탄과 이어지는 7일, 총 8일 동안 축일을 거행하는 축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의 유래, 해외에서도 의무 대축일에 쥐는지?



5세기 경 예루살렘 근처 카티스마에 세운 마리아 성지의 봉헌 기념일,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이 8월 15일이었던 데서 유래됐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애기입니다. 이날은 후에 성모 무덤 성당에서 기념되다가 6세기경 명칭이 ‘성모 안식축일’로 바뀌었고 로마 황제는 제국 전역에 이 축일을 도입하고 8월 15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 축일은 7세기에 서방 교회로 전해져 성모를 공경하는 축일로 널리 지내게 됐으며 축일명칭도 ‘성모 안식 축일’에서 ‘성모 승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르지오 교황님은 여타 성모 축일처

럼 행렬을 하도록 권함으로써 축일이 더욱 성대해지는 데 기여했고, 니콜라오 1세 교황님은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등과 같이 대축일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연히 8월 15일인 광복절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매우 기쁜 날이기에 ‘일부러 광복절에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방되기 약 1400여년 전(7세기)에 이미 성모 승천 대축일은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역시 ‘의무 대축일에 가톨릭 신도들은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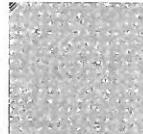
에 참여하고 육체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



다.’는 규정이 있기에 쉽니다(특히 유럽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주보 큐알(QR)



인간은 누구인가?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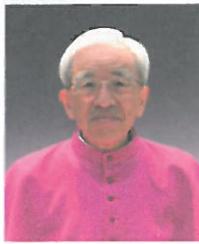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선언하실 때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질문이지만 여전히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어김없이 이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보여줍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감추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지요. 또한 오랜 전승을 간직한 시편에서도 하느님의 존엄함을 친양하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시편 8편 참조)

사람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존재론적 질문이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실존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천사보다는 못하지만 인간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엄과 비참함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며, 밝음을 찾아 몸부림치는 올곧은 사람이지만, 또한 어김없이 자신을 둘러싼 어두움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금방 이웃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그 사이에 있는 중간자적 존재라고 부

릅니다. 파스칼은 성 클레멘스 축일 전날 밤 깊은 신앙 체험을 통해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신앙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고 묻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앞으로 1년간 철학이 대답한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인류의 지성사는 모두 이 문제에 답을 찾으려 했던 역사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모든 철학의 질문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인간 이후의 인간에 대한 철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부르는 이 사조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말 뒤에는 시대의 풍요로움에 빠져든 맹목이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맹목을 넘어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저의 철학적 언어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교우 여러분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철학자의 신이 아닌 역사 안에 현재하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지요.

정의채(바오로) 몬시뇰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정의채(바오로) 몬시뇰께서 지난 2023년 12월 27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정의채 몬시뇰은 1925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여 1953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초량·서대신동성당(현. 부산교구),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와 부학장, 대학원장을 거쳐 불광동·명동성당,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장으로 사목하였습니다. 이후 교황 요한바오로 2세 특명으로 교황청 제8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을 하셨고 1991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이후 서강대학교 석좌교수(1992년~2009년)로 사목하시다가 2005년에 몬시뇰로 임명되었습니다. 2005년 서울대교구 교구장 고문 위촉되었으며, 2023년 12월 30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1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김수규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생명위원회

-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2회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월9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4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2일(금) 오후 2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불가)
명동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교구 및 본당 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월 7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묵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 미사: 2월 4일(주일) 오전 10시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월 8일(월)부터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내 1층

식사 및 성묘-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도림동성당 출발 / 신청: 02)833-9439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월8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4 월화 성경통독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령기 역사서(1월)

때: 매주(월·화) 13시~15시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회비: 12만원(연회비) / 문의: 010-8889-5425 (문자로)

제58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1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곳: 1월21일(일), 서울대교구 순례지

신청: 1월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2만5천원(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3년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자녀의 스카우트 대원 활동을 원하는 부모님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때: 2월3일(토) 14시, 2월4일(일) 14시 중(택1) / 1월 30일(화) 24시까지 접수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신청방법: <https://url.kr/mekhu6>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문의(기타): 02)762-9857 / (화~토) 8시~17시

캘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홍덕희 개인전: 1전시실

세상치유 밝은 빛 4인전: 2전시실

예림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10일(수)~18일(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400차 미사 1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마전동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월8일(월)~26일(금)

접수방법: 이가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2024년 3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래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면접전형(실기)→합격자발표→등록

인준단체 알림

모임

평화의 모후 청년 썰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내용: 강의, 성체조배 / 문의: 010-9742-3842
 때: 둘째주(일) 1월14일 9시(미사)~16시30분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미아리 본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주제: “너 어디 있느냐?” / 대상: 35세 이하 형제
 때, 곳: 1월26일(금)~28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 문의: 010-6608-3217

노틀담 사순 묵상 기도모임(노틀담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때: 2월14일부터 매주(수) 19시30분~20시30분(총 6회)
 곳: 노틀담교육관(복촌로 54) / 문의: 010-3930-6730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명동성지 피정)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북스 회원
 때, 곳: 8월20일(화) 11시~16시,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프로그램: 강의 양은철 신부, 순례기도 모임별 회장단, 레크레이션 이해동 신부, 파견미사 이창항 신부
 문의: 02)944-8421, 010-9752-8421 바오로가족 협력자회, 010-2557-1361 레벤북스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17시,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1월8일 변우찬 신부 1월15일 양창우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월9일 이창진 신부 1월16일 성시간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월12일 촛불기도회 1월19일 이상기 회장

자리산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3월1일~2일, 6월20일~21일
 국내성지 2월23일~24일(대구교구), 3월19일~22일(제주교구)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문의: 010-7374-3217

4월15일(월)~26일(금) 루르드·스페인·파티마 / 회비: 505만원
 6월7일(금)~15일(토) 이스라엘 / 회비: 465만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2월16일(금)~24일(토), 3월16일(토)~24일(일)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자체취사) 010-9715-1203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4차 2월9일(금)~17일(토)
 제125차 3월8일(금)~16일(토)

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1월25일(목)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15명

구산성지 신양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양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주일은 거룩한 날, 귀한 날, 영적인 날이니, 거룩히 지낼지라 / 2월은 방학입니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월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친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메주고리예 기도 일일 피정·1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예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예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인수(중식 무료)
 때: 1월8일(월) 10시~16시 / 강사: 이창진 신부

2) 1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1월13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 인수(중식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눈꽃산행 1월27일~29일·2월3일~5일·2월14일~16일·2월23일~25일·2월27일~29일, 3월1일~4일(추자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일~3일·4월6일~9일(추)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2024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칸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72차 3월10일(일)~22일(금) 12박13일

75차 5월22일(수)~6월3일(월) 12박13일

77차 10월25일(금)~11월6일(수) 12박13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54, 010-4154-0885

1박2일 2월24일 14시~25일 14시

2박3일 1월12일~14일 40일 6월20일~7월29일

8박9일 6월23일~7월1일, 8월5일~13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한라산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눈꽃산행 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자연순례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성지순례 3월21일~24일, 4월13일~16일

교구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팀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2월17일~19일(수도원·대구 17곳)·3월1일~4일
 (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3월1일~4일(전주
 11곳·광주 4곳)·4월20일~24일(울릉도·독도·수
 도원)·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국외 5월15일~27일, 독일 수도원·바티칸·이탈리아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유기상 신부(18양천지
 구 지도) / 문의: 010-9074-6527

때: 1월8일(월) 13시~16시
 곳: 양천성당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울대교구 전례꽃꽃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2월29일 봄하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영
 성센터 A201호 / 010-5236-5493, 010-5224-1108

CaFF영화제작워크숍 12기 수강생 모집

때: 3월6일~6월15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 전문가 양성기관

1월26일(금) 17시까지 접수 / 모집: 제1과정(예비
 과정·철학·신학 62학점), 제2과정(석사 과정)

각 장학금 수업료 50% 감면 혜택

문의: 02)2164-6521(cukgscl@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년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월7일(일)까지 / 면접: 1월16일(화) 16시(예정)

문의: 02)2164-4176, 4787, 4173(<https://ged.catholic.ac.kr>)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

곳: 프실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선
 교회부설(주최) / 010-4694-1880(learning4@daum.net)

오전반 1월10일(수) 11시 저녁반 1월9일(화) 19시30분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2월 학기)·월피정

문의(접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1)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 공부와 33일 기도

곳: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6개월)

대면반 2월6일~7월28일 매주(화) 14시~16시

Zoom반 2월8일~7월28일 매주(목) 20시~22시

2) 하느님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 묵상 피정

때, 곳: 1월15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문의: 02)333-9898 한국CLC

평신도를 위한 1월30일~3월5일 매주(화) 10시30분
 기도훈련 ·19시40분(6주), 한국CLC 강의실

청년들을 위한 1월29일~3월11일 매주(월) 10시30분
 기도훈련 ·19시40분(6주), 실시간 Zoom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0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1년, 주3일) 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선교아카데미 제13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95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7일~10월17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
(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6개월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1월10일(수)	13시30분~15시	
1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1월12일(금)		19시~20시5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기-대금 소금 단소 (목) 10시30분~12시30분
생활음악기-팬플루·통기타·우쿨 분, 15시~17시, 18시
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鲱슬 ~20시 /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 010-7244-1312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예수님의 파스가 그리고 새로 나는 삶	최지원 수녀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1	송봉모 신부
수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홍기령 교수
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	김관희 신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욥기 강독	주원준 박사
금	하무虚無와 의미의 '고헬렛'과 현대인 배철현 교수	

모집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시 / 교회음악(미사곡·오라토리오)
연주에 관심있는 분(전공자, 유경험자 환영)
문의: 010-6292-6225 시스피니 음악원

2024년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정기 단원 모집

때, 곳: 1월19일(금),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2024년 중1~고1 / www.stvin.or.kr
내용: 연탄봉사, 농촌봉사, 해외봉사, 환경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청소년 리더십 양성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010-3006-0810
활동: (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14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문의: 010-3006-0810 / 카톡 오픈채팅방: LogosChoir

가톨릭합창단 2024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9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종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3월9일(토) 13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3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마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니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월13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종후원회 군종교구장 신년하례 미사·특강

강사: 김문강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월8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45-6096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유동철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월1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살레시오회 미사·피정 / 문의: 02)828-3522

1) 살레시오회 성소 후원 미사
때, 곳: 매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2)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때, 곳: 수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교육관

안내

2024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2024년도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홈페이지(www.jjscen.or.kr) 게시판 참조
문의: 02)726-0700, 0701 전·진·상 영성센터

끼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치위생사 또는 치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물류,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홍보 담당 간사 1명

접수: 1월21일(일)까지 이메일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중계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차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자 31년 이상된 교우로 시설관련 자격증, 면허 소지자 우대 /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월21일(일)까지 우편(우0172,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80 중계동성당) 및 이메일(tinkey7@naver.com)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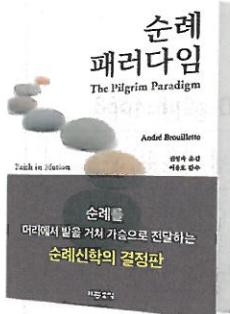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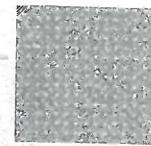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영어 통역 가능한 분

업무·인원: 이주노동자 상담 및 행정 업무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월14일(일)까지 이메일(aoc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월13일(토) 13시	아프리카잡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분원(보문동)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순례 패러다임

앙드레 브루예트 지음
기쁜소식 | 370쪽 | 3만원
문의: 02)762-1194

요즘 국내외로 성지 순례를 가는 신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순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하기보다는 단순히 몸을 움직여 그곳에 다녀오는 순례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순례의 정의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순례와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성경에 등장하는 순례 여정과 현대의 순례자의 예시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신간

성녀 베들레헴의 마리암

엠마纽엘 멜라르 지음
기쁜소식 | 148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성녀 베들레헴의 마리암의 일생과 성녀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다. 1부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갈릴리의 아랍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리암 성녀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기까지 겪었던 신비로운 일로 가득한 일생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마리암 성녀가 남긴 메시지와 성녀의 일화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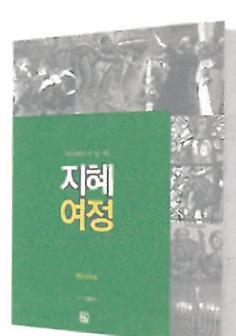


신간

지혜 여정 역사서5 토빗기·유딧기·에스테르기

김영선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지혜 여정 역사서5(토빗기·유딧기·에스테르기)』는 토빗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배려, 유딧의 악에 맞서 싸우는 여성의 용기와 리더십, 에스테르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소수를 위한 목소리 등을 최근 성서학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책이다.



신간

지혜 여정 역사서6 마카베오기 상·하

김영선 지음
생활성서사 | 216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지혜 여정 역사서 마지막 권 『지혜 여정 역사서6(마카베오기 상·하)』은 마카베오기 상·하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 알려 주는 친절한 성경 교재이다. 지혜 여정 역사서 1-6권의 저자 김영선 수녀는 그 교훈을 묵상하고 실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크리스마스 별의 이야기

엔리케 모나스테리오 지음
세인트힐 | 128쪽 | 1만2천9백원
문의: 010-3930-2675

엔리케 모나스테리오(Enrique Monasterio) 신부의 <크리스마스 별의 이야기>는 성탄의 감동과 포근함이 묻어있는 모든 나이대를 위한 동화다. 이 책은 깊은 신학적 통찰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내며 독자가 이를 통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동반작가 기획전

일시: 2월 4일(주일) 9시30분~17시30분까지
(월요일 휴관) | 문의: 02)3147-2401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지하 2층 기획전
시설, 기획소강당, 지하 3층 하늘길, 지하 1층 전
망대 공간)

이 전시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여는 첫 동반작가 기획전이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선정된 작가 3인의 신작을 소개하는 자리로, 그간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이후창의 '형상과 현상, 성스러움에 대하여'와 이미성·주미·나의 '비(非)영원성의 영원성' 크게 두 개의 전시로 기획되었다.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병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혼인면담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 유아세례 : 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복사단 겨울 캠프

일시 : 1월 15일(월)~17일(수)
장소 : 용평 스키장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병자영성체

일시 : 1월 26일(금) 오전 10시 출발

◎ 중고등부주일학교 겨울 피정

일시 : 1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 사도들의 모후 수도회 피정의 집
대상 : 예비 중1~고2
참가비 : 70,000원(현금 or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3333-24-4281283
신청기한 : 1월 19일(금)까지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금)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9,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8일(주일)

◎ 남성울뜨레야

일시 : 1월 21일(주일) 교종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일시 : 1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여성구역회 기금마련 떡국떡·만두 판매

수익금 1,934,000원
※ 도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2. 3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19	882 (43.7%)	852 (42.2%)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현금

故 임숙희 루시나 상가 일백만원
故 강영자 윤리안나 상가 이십만원

◎ 감사현금 (12월 25일~31일)

익명	오만원	유원형	오만원
익명	오만원	이명숙	일백만원
곽선모	오천원	김민정	일십만원
이은영	오만원	박병희	오십만원
이현수	일십만원	한경희	일십만원
신영자	오십만원	이향래	일십만원
배옥희	삼십만원	익명	삼만원
안성은	일십만원	김재영	이십만원
첫영성체반			일십일만원
故 강영자 윤리안나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성가정 축일)

교무금	26,315,000원
주일헌금	5,772,600원
성모마리아대축일헌금	5,123,120원

입당	100	봉헌	102,106,108	성체	105,103,188	파견	487
----	-----	----	-------------	----	-------------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